



한국 야구 WBC 결승 진출

“美·日 4강전 투수력 소모 많았으면”

■김인식 한국 감독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탁월한 용병술을 펼치며 한국 야구를 처음으로 결승전으로 견인한 김인식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노련한 입신을 과시했다.

김인식 감독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WBC 준결승에서 베네수엘라를 10-2로 대파한 뒤 “오늘 승리했다는 것은 뜻밖이다. 게임 내용은 초반 상대방의 에러가 겹치는 바람에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결승 상대로 미국이나 일본 중 어느 팀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야구는 어디가 올라오는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바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두 팀에서 피도둑 투수를 소모하는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즉, 23일 열리는 준결승에서 로이 오스왈트와 마쓰자카 다이세이를 각각 선발 투수로 내세운 미국과 일본이 혈전을 벌여 양팀 투수들이 소모전을 펼친다면 한국이 결승전에서 훨씬 쉽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년 전 1회 대회때 기적의 4강 진출을 견인한 뒤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이 밝힌 대로 ‘위대한 도전’에 나서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룩한 김 감독은 일단 모든 공로를 선수들에게 돌렸다.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결승 경기에서 베네수엘라에 10-2로 대승. 팀을 이끈 김인식 감독이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선수들은 큰 잠정을 갖고 있다”

고 밝힌 김 감독은 “물론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선수들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상대 선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쁜 볼에는 손을 안 대는 타자들”이라고 강조한 뒤 “그런 것들이 모여 약착같은 모습이 됐고 오늘 승리한 동기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나연 LPGA 첫 승 보인다

마스터카드 2R 7언더 공동선두

신지애는 4오버 공동 4위 추락

최나연(22·SK텔레콤·사진)이 머니맨 멕시코 땅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첫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최나연은 22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의 보스캐랄 골프장에서 열린 마스터카드 클래식 2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4개를 골라내 2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를 적어낸 최나연은 청아니와 함께 공동선두에 올라 23일 마

지막 3라운드에서 우승을 노리게 됐다.

전날 선두였던 오초아는 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등 고전하다 1타를 잃어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팻 허스트(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3타를 줄인 박세리(32)도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로 김승희(21)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유선영(23·휴온스)과 박지은(30·나이키골프)도 공동 7위(4언더파 140타)에 포진해 한국군단의 두터운 벽을 쌓았다.

한편 신지애(21·미래에셋)는 2타를 잃고 공동 46위(4오버파 148타)로 떨어져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연합뉴스

동신여고 단체·순천대 남북

회장기 정구대회 우승

순천대 박상형·김현수 조가 제3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박상형·김현수 조는 22일 순천팔마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부대학부 복식 결승에서 전지현·박상민(이상 대구가톨릭대) 조를 4-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남부부 단체 결승에서 대구가톨릭대에 0-3으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여고부 단체결승에선 동신여고가 순천여고를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동신고는 남고부 준결승에서 문경공고에 1-3으로 져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조계용·장용호 우수 국가대표

광주우수협회 조계용·장용호가 우수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조계용은 22일 영광군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1회 회장배전국수선수대회 경 겸 초소년대표·국가대표 선발전 장경부문에서 우승,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팀 동료 장용호 태극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강혜은·남보라 볼링 금

광주 강혜은·남보라 조(주)텔룩스가 제2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볼링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혜은·남보라 조는 22일 제주 우성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2인조전에서 2천537점을 기록, 전남의 박선영·최지수 조(2천493·은메달)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장애인배구협회장 김용태씨

광주시 장애인배구협회는 김용태(55·사진)씨를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안도 출신으로 생활체육 광주 북구 배구연합회 상임부회장과 북구 배구연합회장을 맡아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왔다. 취임식은 23일 오후 북구 그랑시아 웨딩타워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점포 주인공 김태균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야구 대표팀의 결승행을 결정짓는 시원한 2점 홈런을 쏘아 올린 주포 김태균(27·오른쪽)이 동갑내기 친구 추신수(클리블랜드·왼쪽)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태균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 WBC 준결승에서 10-2로 이긴 뒤 공식 인터뷰에서 “추신수의 조언이 도움

“추신수 조언대로 상대 투수 공략”



됐다”며 공을 친구에게 돌렸다.

김태균은 “신수가 ‘너에게는 실바가 몸 쪽에 떨어지는 싱크 같은 공을 잘 던질

것’이라고 얘기해줬고 그런 공을 대비하다 홈런을 때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균이 실바로부터 홈런을 빼앗은 공은 141km짜리 어중정환 공으로 직구로 약 141km에 이르는 실바가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볼을 던졌기에 이 공은 변화구에 가까웠다.

추신수의 조언대로 김태균의 노림수가 빛을 발한 셈이다. /연합뉴스

■포상금 얼마나 되나

한국대표팀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사상 첫 결승에 진출함에 따라 200만달러(약 28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한국은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준결승전에서 10-2로 승리함으로써 이같이 두둑한 상금을 받게됐다.

한국이 24일 결승전(일본-미국 승자와

38억 확보...우승 땀 52억원 ‘대박’

대결)에서 이겨 우승할 경우 우승 상금 100만달러를 추가로 더 받아 최대 300만달러를 거머쥐게 된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올림픽급메달과 WBC 4강 이상에는 포상금 10억원을 지급한다’는 신설 규정에 따라 지난 18일 한국이 4강 진출을 확정지은 후 보너스 10억원도 확보해 우승 총상금은

300만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라운드 출전금과 우승 상금 각각 30만달러씩에 2라운드 진출금 40만달러, 준결승 진출금과 결승 진출금 각각 50만 달러씩 받아 총 200만달러의 상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준우승 상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주영 3호골...모나코 2연승 전인

프랑스 무대에서 활약하는 박주영(24·AS 모나코)이 139일 만에 시즌 3호 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로렌주 남시 스타드 마르코-피셀에서 열린 남시와 2008-2009 프랑스 정구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 후반 90분을 모두 뛰면서 0-0으로 맞선 후반 26분 헤딩으로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지난해 11월3일 트라브르와 12라운드 원

정경기(3-2 승) 결승골 이후 139일 만에 재가득한 득점포이자 프랑스 리그 진출 후 개인 통산 3호골이다. 리그 11위였던 모나코는 남시의 거센 공세에 밀리다가 박주영의 득점으로 1-0으로 이겨 2연승을 달성했다.

데뷔 무대에서 골을 넣었던 지난해 9월14일 로리앙과 5라운드 홈 경기(2-0 승·1골1도움)를 시작으로 박주영이 득점을 올린 세 경기에서 모나코는 모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연합뉴스

최성국 3호골 광주, 서울 1-0 꺾고 홈 2연승

득점왕을 향한 ‘리틀 마라도나’ 최성국의 기세가 등등하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의 신입 공격수 최성국이 지난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3호골을 쏘아올리며 득점 부문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이 골은 팀의 1-0 승리를 견인하는 결승골이어서 살매기 아들 최은유를 위한 골로 ‘특

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날 경기에 아들 은규군이 입장 에스코트로 나서면서 최성국은 모처럼 부자 상봉을 했다. 아들의 응원을 받은 최성국은 과감한 드리블과 돌파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끝에 0-0의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지던 후반 9분, 드리블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서울의 골문을 흔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월)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14 : 10·KBS1)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결승전 (미국 : 일본)(08 : 30·MBC·SBS·Xports) ▲회장기 전국수상씨름대회 (13 : 50·KBSN SPORTS)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경남고 : 마산고)(18 : 20·KBSN SPORTS))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1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시설 및 개략도상담 대환영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총수, 감정가, 최저가. Includes sections for '주목 (내집마련/전원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and '주택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묘지/부자)'.

개업·성업 안내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만리정 정종중화요리전문점 한국... 수원SKLPGA출전소 대표: 차혜순... 원도어부촌 대표: 정영미 서구 풍... Queen피부관리 대표: 임애...